

김산 군수 3선 가도...치열한 ‘다자구도’ 예고

내년 지방선거 누가 뭐나

〈3〉무안군수

현직 프리미엄 vs 재도전 후보군 대결

핵심현안 군공항 이전 문제 대응 주목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무안군수 선거 구도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현직인 김산 군수의 3선 도전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유력 인사들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며 치열한 다자구도를 예고하고 있다.

현재 무안군수 후보군으로 현직 프리미엄을 얻은 김산 군수를 비롯해 나광국 전남도의원, 류춘오 무안군체육회장, 이정운 전 무안군의회 의

장, 최옥수 전 무안한옥리조트 대표 등 5명 안팎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김산 군수는 군의회와 군의회 의장을 거쳐 2018년, 2022년 두 차례 군민의 선택을 받았다.

김 군수는 의정활동과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군정 운영 능력을 발휘해왔다. 도농복합도시로서의 균형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공공의료, 복지 확대 등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특히 원만한 성품과 합리적인 판단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오룡지구 고등학교 신설 등 지역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나광국 전남도 의원은 세대 교체를 상징하는 차세대 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대학 총학생회장을 거쳐 11대 전남도의회에 최연소 의원으로 입성한 그는 최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아 예산 심의와 정책 조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특위 위원장도 맡고



있다.

나 의원은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지역 내에서는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나 의원은 지역 민심과 당내 분위기에 따라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 무대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지역 체육계의 망형 격인 류춘오 무안군체육회장도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정계면 출신으로 광성

산업건설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류 회장은 지역 체육계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왔다.

류 회장은 2022년 민선 2기 무안군체육회장에 당선되며 체육회 운영의 투명성·전문성을 강조해왔다. 종목 협회 간 정례적 소통, 체육 인프라 확대, 전국 단위 대회 유치 등을 통해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정치권 인사들과의 유기적 교류 폭도 넓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출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정은 전 군의회 의장도 유력 후보 중 한 명이다. 공직 생활 22년, 지방의원 8년의 경험을 발판 삼아 이 전 의장은 2022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군수 선거에 도전했었다.

당시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반대 활동을 주도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던 이 전 의장은 ‘지방자치의 핵심은 군수의 철학과 리더십에 있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

2022년 군수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옥수 전 무안한옥리조트 대표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당시 컷오프 위기 속에서도 중앙당 재심을 통해 최종 후보가 됐고 농업·관광·산업 균형발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최 대표는 ‘군민 행복지수 1등’을 내걸고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정책을 제시했으며 당시 경쟁자였던 후보들의 지지 선언을 받아내며 ‘원팀’을 실현한 경험도 있다. 향후 민주당 후보 경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무안=김상호 기자



초복 앞두고 닭죽 나눔 임택 광주 동구청장이 15일 자비신행회에서 관내 어르신들에게 닭죽 배식 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날 위문 공연 및 닭죽 나눔 행사는 초복을 앞두고 동구새마을회 주관으로 마련됐다. <광주동구 제공>

전남산림연구원, ‘남도멋쟁이유리나방’ 최초 발견

전남도산림연구원은 15일 “유리나방(clearwing moths)의 신종인 ‘남도멋쟁이유리나방’을 최초 발견, 최근 학술지(Journal of Species Research)에 공식 보고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연구는 김익수 전남대학교 교수와 최세웅 목포대학교 교수 연구팀과의 공동연구로 수행됐다. 발견된 신종은 채집지인 전남도와 성충의 우아한 형태를 반영해 ‘남도멋쟁이유리나방

(신칭·Synanthedon namdolegans Kim et al., 2025)’으로 명명됐다.

국내 농작물, 조경수, 가로수 등 생활권 수목에 피해를 주는 주요 해충인 유리나방은 성충의 날개에 인편(비늘)이 거의 없어 유리처럼 투명하게 보인다. 외부 형태와 독특한 비행 자세 때문에 발견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번에 보고된 신종은 복부의 등과 배의 띠



색이 주황색과 노란색으로 서로 달라 국내에 보고된 유리나방과 구별된다. 연구진은 형태학적 특성과 유전자 분석 결과를 종합한 결과, 세계 최초로 발견된 새로운 종임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양시원 기자

‘한류 열풍’ 강한 中 선양시에 전남 농수산물식품 상설관 개장

도내 20개 기업 年30만달러 수출 목표

전남도는 15일 “최근 중국 라오닝성 선양시의 한백마트에서 ‘전남 농수산물식품 상설판매장’ 개장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전남도 중국사무소장, 주선양총영사관, 코트라 선양무역관장, 선양 호남향우회장, 월덕옥타 중국지회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개장을 축하했다.

상설판매장은 선양 한인타운 중심부 한백마트 안에 ‘샵인샵(Shop in Shop)’ 형태로 들어섰다. 전남도는 이곳을 통해 현지 문화와 소비자 취향에 맞춰 제품 기획, 물류,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판매장에서는 전남의 20개 기업이 만든 50여종의 농수산물 가공품, 건강식품, 밀키트(간편조리세트) 등을 상시 판매한다. 연간 30만달러(약 4억원)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매장에서선 전남의 전통과 자연을 담은 사진을 전시하고 추천 상품을 안내하고 있다. 또 방문객을 위해 시식행사, 할인쿠폰 제공, 요리 시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열어 단골 고객을 확보할 계획이다.

선양시는 한류 열풍이 강한 지역으로 한국 식품 전문매장이 다수 입점해 있다. 전남도는 오

프라인 매장뿐 아니라 타오바오, 옥타몰 등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을 연계해 판매를 확대할 방침이다.

신현군 국제협력관은 “상설판매장 개장은 중국 시장에 전남 농수산물식품의 안정적 공급망을 마련하는 전략적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현지화 지원과 물류 인프라 강화로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돕겠다”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

광주시 재산세 1천607억 부과

광주시는 15일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한 7월 기준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포함) 7,025천967건(1천607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치구별 부과액은 동구 140억원, 서구 380억원, 남구 209억원, 북구 387억원, 광산구 491억원이다. 부과 건수는 지난해 대비 1만5천983건(2.3%), 부과액은 31억원(2.02%) 각각 증가했다.

광주시는 재산세 증가 요인으로 개별주택가격 상승(1.58%),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신규 부과 대상 증가, 건물 신축 및 가격 기준액 상승 등을 꼽았다.

납부 기간은 16~31일까지다.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상이면 7월과 9월 연세액의 1/2씩 나눠 부과된다. /변은진 기자

그린[🌱]알로에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2017 건강기능식품 대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인·간도 동등한 품질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일일 섭취량 중 총 다당체 함유량 300mg 함유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물입니다.